

【 2019 공인노무사 합격 김하준 】

1 차 시험 점수	노동법	사회보험법	민법	선택과목(경영학개론)
2 차 시험 점수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경영조직론)
	271.24	174.57	190	168
	총점	803.82	평균	59.54

주제1.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쉽다고 착각한 공인노무사 수험과 길어진 공부기간

공인노무사 수험은 1년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정보와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진입했을 때도 쉽게 쉽게 공부 할 수 있었고,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 투입하지 않았던 동차 수험때 0.08점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차이로 떨어졌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해에는 무조건 붙을 수 있겠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고, 학업과 일 병행을 하면서도 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최소한의 시간만을 투입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수험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계속 소수점 차이를 넘지 못하고 5번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물론 시간으로만 따지면 턱없이 부족한 공부시간이었지만 햇수로 5년이란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2019년)는 무조건 붙어야겠다는 마음으로 2018년 12월 노무사단기 프리패스를 결제하고 본격적인 공부를 1월달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떨어진 다음해의 공부시작시점이 5월(1차를 쳐야 될 경우) 또는 6월달이었던 점에 비해 빠르게 준비를 하여(1월 공부시작) 불합격의 확률을 줄이면서 합격의 확률을 높이하고자 하였습니다. (100% 전업수험)

주제2. 과목별 학습 방법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1.취약과목이 아닌, 취약문제가 없어야 한다!

많은 시험을 쳐보면서 느낀 바는 올해 특정과목이 60점 넘었다고 해도 내년에도 고득점이 보장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 경영조직론 65점을 받았는데 올해는 56점이 나와 하마터면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경영학과목이 특히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노동법이나 행정쟁송법 같은 법 과목들도 과목마다 3문제씩 밖에 출제되지 않는 공인노무사 시험의 특성상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 점수 변동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취약과목에 대한 생각보다 스스로 특정 쟁점이나 주제에 대한 약점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본인이 노동법을 잘한다, 행정법을 잘한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 문제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자신 없는 문제가 나온다면? 확 밀릴 수 있습니다.

2.기본은 무조건 암기한다는 생각 + @

(여기서 기본이란 2, 3기 모의고사 톡치면 나올 정도)

소위 말하는 강사님들이 찍는 A, B등급의 주제들을 이해하고 달달 암기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듯 합니다. C, D 등급의 주제라 하더라도 아예 건너뛰기 보다는 혹시라도 나오는 경우 뭐라도 쓸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매년 강사님들이 중요하게 보지 않는 주제들이 과목 당 하나 둘씩 나오는 추세임을 볼 때 알고 넓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래는 공부방법의 일반론 적인 것 보다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각 과목별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적어보겠습니다.

2-1. 노동법 (TIP – 사실관계를 공부한다)

판례를 외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공부하면 누구나 비슷하게 암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이나 판례를 잘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례에의 적용 즉, 포섭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누구는 적당히 57~59점을 받는데 그치고, 누구는 60점 이상으로 판가름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정 판례의 사실관계가 곧 사례형 문제의 포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판례를 학습하고 암기하는 것을 넘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올해 시험에서도 많은 수험생들이 학습한대로 학설 판례 등을 충실하게 적고 왔음에도 실제 합격자 발표날, 뭔가 납득 못 할 점수를 받아 들고 납득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법대 교수님들이 로스쿨에서 강의하시고 노무사 수험도 실무와 적용 위주의 변호사 시험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전통적으로 이론 및 학설에 치중하는 공부보다는 사안에 서의 적용에 힘을 주고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 행정쟁송법

(TIP – 양이 적다? 1. 그대로 외워야 한다, 2. 빠른 길보다 정확한 방향)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사님 믿고, 이해하고 외운다. 그리고 반복한다.

양이 적어서 공부가 수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공인노무사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공부하실 때 이해는 물론 그대로 외운다는 마음을 특히 더 가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0기부터 3기까지 정선균 선생님의 강의를 꼭 들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교재와 완벽한 수업 후에 제가 해야 할 것이라고는 복습밖에 없었습니다. 혹자는 문제의 쟁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쟁점 찾는데 문제를 느끼시는 분들은 공부가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묻는 걸 빠르게 캐치해내고, 일반론/관련된 판례를 최대한 많이 적어내는 것까지가 기본이고, 그 후에 문제 및 사례에 적용해내는 것이 행정쟁송법 고득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듣고 책 3번을 읽었는데 모르겠다? 또 읽으면 됩니다.

정선균선생님은 확실히 빠른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길입니다. 빨리 가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수험생활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쟁송법은 천천히 가도 될 만큼 양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 이번 시험에서 쉽게 가르쳐주시는 강사님의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이 아예 논점이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통 행정법 학자의 강의를 통해 연습과 훈련을 한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법학용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니 0기 혹은 1기는 인강을 활용하여 준비해보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2기 3기는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다시 반복 학습하는 과정이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보시길...

2-3. 인사노무관리 / 경영조직론

(Tip-교과서 내용은 기본이고 관련 사례 적시)

많은 사람들이 최종락 선생님의 교재로 공부를 할텐데 누구는 70점의 고득점을 받고, 누구는 50점 의 저득점을 할까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전제하에)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령 올해 출제된 '조직시민행동'에 대하여 답안지를 작성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공부한 수험생중에 답을 못할 수험생이 있을까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명 이상은 기본서에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 적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500명 끼리는 점수격차가 왜 나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기본서에는 없는 다양한 '사례'에서 찾았습니다.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이든 실제 경험이든 기본서에 있는 지식들을 실제 사례에 적용한다는 느낌으로 적시해준다면 달달 외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쓰고 온 답안지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에 유리할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본서 내용을 합격율 축하드립니다! 현장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충실히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으로는 합격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나와 같은 책을 보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계속 하면서 공부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해 시험에서도 오랜 수험경력을 가진 수험생들이 납득하지 못할 점수를 받아 든 반면, 상대적으로 공부기간이 짧은 동차생들이 소설쓰고 왔는데 점수가 잘나왔다는 글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단순히 경영학과목 특히 인사과목이 낱감이라서가 아니라 적당한 이론적시에 본인의 경험이나 이미 알고 있는 사례들을 풍부하게 적었을 때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더욱 높게 평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서 내용을 충실히 공부하셨다고 안주하기 보다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현상들과 계속 연계하여 생각해보는 것이 경영학 고득점의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합니다.

3. 법학 7 : 경영학 3

법학은 어느 정도 답(판례)이 정해져 있어서 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는 정직한 과목인 반면, 경영학과목은 상대적으로 점수의 등락이 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10시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법학과목에 7시간, 나머지 3시간을 경영학 과목에 투자하였습니다. 경영학 과목을 공부할 때는 답이 있는 부분 (특정 학자가 주장하거나 이론을 구성한 부분 등등) 을 숙달하는데 시간을 투입하고 그 이상으로 시간이 투입되지 않도록 계속 경계했습니다. 경영학 과목은 투입 대비 산출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아 최대한 '방어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실제로도 공인노무사의 수험 답안지를 보면 16페이지 밖에 안 되는데 (공부해보시면 16페이지가 많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웬만한 경영학 논문 내용의 10분의 1을 적기에도 빠듯한 분량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경영학공부를 아무리 깊게 하더라도 답안지 자체에 그 깊은 내용을 다 적을 수 없고, 적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경영학 전 범위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를 논문들을 보며 깊게 공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시험장에서의 시간제한도 큰 장애물이 되겠지요. 그래서 나름 답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학자 (예로 올해 시험에 출제되었던 켈만) 나 유명한 개념 및 이론 (예로 올해 출제되었던 조직시민행동) 정도만 빠지지 않게 준비하고 쓸데없이 공부량이 늘어나는 것을 항상 경계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수험합격이지 학문탐구가 아니니....

주제3. 시기별 학습 방법

- 월별 또는 기수별 공부 방법, 시기별 추천 강좌 또는 학습방법 등

#0기/1기 (tip 인터넷강의 강력추천 그리고 책 단권화의 완성)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주제들은 0기 또는 1기에 수업했던 내용에 전부 있습니다. 오히려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2, 3기는 관련 사례와 연관하여 살짝 응용도 해보고, 시간 안에 답안지로 옮길 수 있는지 체크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며 훈련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노무사 학원 커리큘럼의 80% ~ 90% 정도는 0기 1기에서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물론 2, 3기도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도 있습니다만 0기 1기에 정리를 잘하면 훨씬 수월하고, 즐겁게 수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들으며 강사님이 어떤 의도로 책을 썼는지 확인하고, 책의 편제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2배속으로 듣긴 했으나 필기 등 확실한 정리를 위해 계속 정지 (pause), 재생(play) 해가면서 들어 1시간 강의 기준 30분 ~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또, 강의 듣는 시간은 공부한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강의 후 어떻게든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0기 1기에서 여력이 되면 본격적인 암기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익숙하게 만드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기 때 서브노트 등으로 진행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시긴 한데 1기 끝나기 전에 잘 정리해놓은 책이 있다면 굳이 서브노트를 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읽고 정리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입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2기/3기 (tip – 모의고사를 등수 말고, 본인의 공부를 확인해야 된다!)

모의고사는 목적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 모의고사의 성적이 실제 시험의 성과로 이어질 확률이 크긴 하지만 100%가 아닌 점, 학원 모의고사 성적에 매몰되어 공부할 경우 전체를 보지 못하고 특정 주제에만 국한하여 공부할 가능성이 큰 점 등등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본인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있고 부족한 점을 찾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정 주제만 공부하지 않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의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니 키워드 위주의 학원 채점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들었지만 1주일 간의 공부를 스스로 돌아보고,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오히려 더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키워드를 하나 더 적었니 어쨌니에 매몰되기 보다 본인이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주 공부방향을 점검하는 용도로 모의고사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의 답안대로 16페이지를 다 채우기는 하였지만 항상 모의고사 바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의 좋은 성적이 실제 시험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매주 모의고사에 휘둘러 예상 주제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보다 본인의 공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실있는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제4. 수강했던 노무사단기 강의 추천

- 수강 했던 강사·강의명, 수강했던 강의의 좋았던 점, 도움이 되었던 점, 보완점 등

#노무사단기 프리패스 추천!

노무사단기 프리패스를 이용하여 시간과 금전적인 부담 없이 다양한 강의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비용이 부담된 것도 사실이지만 시간, 장소, 강의 배수 등등 제한 없이 원할 때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결과적으로 합격하게 되어 강의비용을 환급받게 된 것도 너무 좋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장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특히 주력으로 듣는 강사님 뿐만 아니라 노무사단기에 있는 다른 강사님의 강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관련 주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관점 등도 자유롭게 참고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이윤탁선생님(노동법)

사회법전공자이신 선생님의 심도 깊은 노동법 접근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판례 암기 접근이 아닌 사회법 법리 속에서 노동법의 법리가 어떤식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지혜선생님(노동법)

꼼꼼한 자료를 통하여 판례가 나오게 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무작정 암기하기보다 실제 다툼 속에서 다양한 판례법리를 생각할 수 있어 암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정선균선생님(행정쟁송법)

행정법 강의계에 딱히 말이 필요없는 최고의 검증된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수험강의 경력에서 오는 노련한 강의, 어려운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서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충실히 따라가기만 한다면 특별한 고민 없이 반복학습만 하면 되어 편하게 공부하였습니다.

#최중락선생님(인사/경조)

군더더기 없는 기본교재와 최고의 강의력이 있어 인사경조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타 학원의 강사님들이 다룬 문제들을 따로 취합하여 수험생들의 불안함과 수험생이 찾아보게 되는 불편함을 덜어주셔서 매우 좋았습니다.

노무사 수험의 강사님들이 워낙 상향평준화 되어있고, 특히 노단기의 선생님들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뛰어나기 때문에 본인과 FIT만 맞는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제5. 후배 예비 공인노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 단권화, 스터디, 슬럼프 극복 방법, 체력 관리법, 수험생활 꿀팁, 수험생에게 하고 싶은 말 등

#노무사수험, 우습게 보면 공부기간 길어집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노무사 수험은 누구나 단기합격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노무사 수험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노무사 수험 자체의 양과 난이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떨어지는 경우보다, 본인이 수험을 가볍게 보고 온 힘을 다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무사 수험은 4000명이 시험을 치고오면 4000명 모두가 합격할 것이란 행복회로를 돌립니다) 최근 공인노무사 수험을 보면 시험장에서 빠짐없이 다 쓰고 온 것에 만족하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정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면 시험장에서 쓰고 나올 정도의 수준까지는 쉽게 끌어올릴 수 있지만 거기서 합격권으로 들어가기 위한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안주하기보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투입하여 단 하나의 후회도 남기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권화? - 단권화는 머리 속에 하는 것

행정쟁송법 / 인사노무관리 / 경영조직론은 각각 정선균 선생님, 최종락 선생님 기본서를 0기 혹은 1기(정선균 선생님은 0기엔 교수저로 강의하십니다.) 부터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보고 또 봤습니다. 과목마다 책 한 권을 정하여 특정 페이지의 부분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계속 훈련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권화는 여러 권의 책을 하나의 책에 예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이용하여 그 내용들을 머리 속에 쉽게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책 단권화는 1기가 끝남과 동시에 마무리하면 가장 베스트이고 늦어도 2기 시기가 끝나기 전에 완성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한 권의 책을 계속 반복하며 단원별로 머리 속에 구조화 시키는 훈련을 하여 진짜 단권화를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머리 속에 단원 별로 크게 쪼개고, 각 단원마다 다시 쪼개가면서 머리 속에 계속 구조화 하려고 머리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스터디? – 생활스터디(공부시간 확보)

100% 합격을 위해서는 ‘영덩이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이 필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성이 게으르고, 적당히 좋은 머리 믿고 적당한 공부에 쉽게 만족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올해 공부를 시작하면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불합격)에 뛰어드는 나방(나)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생활스터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12월 말에 생활스터디를 모았고 저 포함 4명의 수험생들이 같은 독서실을 잡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생활스터디는 매일 아침 8시까지 독서실 앞 간판을 찍어 카톡방에 인증하고, 늦으면 벌금을 걷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일단 앉기만 하면 어떻게든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 앉아있기도 어려웠는데 생활스터디를 하니 점심시간까지만 버텨도 이미 4시간 확보가 되었으니까요....

또 열심히 하는 수험생들끼리 모이니 진~~~~~짜 가기 싫은 날에도 카톡방에 인증하는 다른 사람들 사진을 보며 구역구역 나가게 되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공부적으로^ ^, 욕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1월 달부터 계속 같은 멤버가 2기 3기를 거쳐 실제 시험장까지 함께 하면서 서로 자극도 많이 되고, 혼자 했을 때 보다 8배 이상의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체력관리?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헬스를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하여 8시 독서실 인증 때까지 달리기 + 버피테스트 등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몸무게도 10KG 이상 감량도 하고, 공부하면서 체력이 더욱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6월 이후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도림천 달리기를 했습니다. 독서실에만 있으니 몸과 마음이 답답해지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달리기를 통하여 분출해냈던 것 같습니다. 운동은 필수 사

항은 아니지만 하루 최소 8시간의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도 시간이 남는다고 하시면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운동 하기는 귀찮지만 운동하고 난 후는 항상 기분 좋게 리프레쉬 되었고, 상쾌했던 것 같습니다.

#꿀팁과 하고싶은 말?

사법고시도 아니고 계속 길어지는 공부, 납득할 수 없는 점수 획득, 또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란 두려움 등등 돌이켜보니 힘든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왕 다시 하기로 마음먹은 거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자 마인드셋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기 싫고, 짜증 나고, 무기력 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합격해서 공인노무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될 행복한 제 모습을 그리며 매 순간 임했습니다. 합격자발표를 기다리면서 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계속 되는 실패로 합격이라는 두 글자는 제 것이 아니라고만 생각했는데 간절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임하니 저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도 왔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재도전하시는 분들, 수험의 불확실성을 느끼고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 합격증을 받아 들고 밝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못해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파이팅!